

13년 이어온 달빛동맹, 자원봉사 교류로 빛났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일 대구 일원에서 광주-대구지역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90명(각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달빛동맹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 행사는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영·호남 간 자원봉사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고 두 도시 간 지속적인 우정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광주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 광주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참여한 대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담아 피해농가에서 구매했던 농산물을 선물로 전달했다. 이번 교류행사는 ▲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생존 배낭 꾸리기' 체험 ▲ 대구 복성로 문화탐방 ▲ 지

광주·대구 자원봉사자 90명, 대구서 재난대응·문화탐방 교류행사
7월 호우피해 복구 달려온 대구봉사자들에 감사·연대 선물 전달



역별 자원봉사 우수사례 공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이번 교류행사가 광주와 대구 간 협력 정신을 상징하는 '달빛동맹'의 가

치를 되새기고, 자원봉사 분야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13년간 변함없이 교류를 이어온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광주를 돕기 위해 달려와 준 대구 자원봉사자들의 연대에 깊이 감동했다"며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해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화합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광훈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 위기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기상 상태가 잦아짐에 따라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하천에서 고립되는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천 일대에 출입 통제 차단기를 확대 설치한다.

남구는 10일 "변화무쌍한 기후로 극한 폭우가 쏟아지는 횡수가 늘면서 하천 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광주천에 진출입로 원격통제 시설을 추가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현재 구정에서 관할하는 광주천 주변 진출입로는 총 14곳에 산재해 있다.

광주천 진출입로 원격통제 시설을 확대

광주 남구, '폭우시 하천 통제 차단기' 확대

2억원 투입 광주천 진출입로 5곳 추가 설치

구축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남구는 지난 2024년에 사업비 1억 7,242만원을 투입해 광주천 진출입로 14곳 가운데 광주대교와 광주교, 중앙대교 좌·우, 부동교까지 5곳에 차단기를 설치한 바 있다.

구정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는 국지성 집중 호우 등 많은 비를 동반한 기상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원격통제로 시민들의 하천 접근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남구는 올해 6월 21일부터 9월 4

일까지 호우주의보 및 경보가 수시로 발효될 때마다 원격통제 시스템을 가동, 이 기간 총 5차례에 걸쳐 광주천 일대 진출입로 차단기를 동시에 작동하며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광주천 주변 진출입로가 광주대교부터 설월교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에서 차단 줄 등을 설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초동 대처에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10월부터 공사를 시행해 광주천 수계에 있는 금교와 양림교, 학강교, 남광교, 학림교 진출입로 5곳에 원격 차단기를 설치하며, 해당 공사는 11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차단기가 미설치된 뽕다리 앞과 방림교, 이조참치 앞, 설월교 진출입로까지 4곳은 내년에 추가 재원을 확보해 3차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관계 상황실에서 기상 변화에 따른 수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주민 안전을 위해 하천 진출입로 차단기 구축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노란봉투법 폐지화...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이끌어내기도
노동계의 숙원이던 노란봉투법은 세 번의 도전 끝에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담은 법으로, 시행되면 하청 노조가 대기업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지만,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법안 통과 처리를 약속했고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9일 공포됐다.

민주노총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낸 것도 성과로 꼽힌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공식적인 노사정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중중적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새로 출범할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양쪽을 다 보면서 우리 사회가 불신이 많고, 소통도 안 하고, 대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인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에 경사노위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로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대통령의 노동 공약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2027년까지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17시간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4.5일제 도입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 공론화 긍정적" vs "노동계 편향적...기업 반발 부를 수도"

전문가들은 산업안전 강화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놓는다.

다만 산재 감축을 위해 예방 대신 처벌을 강화하거나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두고는 다소 평가가 엇갈린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대통령이 산업안전이나 임금체불 문제처럼 노동 현장에서 기초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안을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많지는 않지만, 다른 여러 노동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성을 보이는 의지는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정년연장은 노인빈곤이 심한 한국에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며

"청년고용과 충돌 우려는 있지만 저출생으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이 줄고 있어 해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으로 노동계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노사관계는 균형성이 중요한데,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기업 경쟁력이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산재 정책과 관련해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당연하고 대통령이 직접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효과를 내려면 노동자의 안전 인식과 문화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포스코이앤씨 사건에서 영업면허 취소를 거론하는 등 기업 압박 일변도로 접근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반발과 형식적 대응만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뉴스시스

북구, '과학·안전 골든벨' 개최... 참가자 모집

상위 6명에 상장 및 상금 수여... 안전 관련 체험 부스 운영 병행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다음달 15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펼쳐지는 '2025 과학·안전 골든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2025 과학·안전 골든벨'은 초등학교 4~6학년 청소년들에게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생활 속 안전 습관을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는 '과학 골든벨'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올해 행사가 기존과 달라진 점은 학부모와 학생 2인 1팀으로 참여했던 방식에서 학생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팀당 1만 원이었던 참가비도 올해부터는 무료로 전환됐다.

또한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 등 극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 및 지식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 과학 지식 퀴즈대회였던 것에서 과학·안전 융합 퀴즈대회로 주제를 확대했다.

참가자 모집은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북구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총 7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에게는 초등학교 교과과정 다양한 분야의 체험 부스가 함께 운영돼 행사에 다채로움을 더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중고기업지원과(☎062-410-8483)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퀴즈대회를 넘어 미래 세대가 창의력과 안전의식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도전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사 당일에는 ▲드론 관제 차량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업사 이클립 키링 제작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부스가 함께 운영돼 행사에 다채로움을 더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중고기업지원과(☎062-410-8483)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퀴즈대회를 넘어 미래 세대가 창의력과 안전의식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도전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서구, 차 없는 거리서 청소년축제 열린다

청소년이 기획·참여하는 '일동모여락'... 체험·공연 등 다채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오는 13일 상무1동 상무오울로 일대(서구청 소년꿈누리센터~광주원음방송)를 차 없는 거리로 전환하고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즐기는 거리축제 '일동모여락'을 개최한다.

'일동모여락'은 "즐거움이 가득한 상무1동으로 모이자"는 의미로 서구청소년꿈누리센터 등의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제적 축제이자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마을공동체형 행사로 마련됐다.

축제는 놀이·먹어·나누·뽐내락 등 4개 테마로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놀이락에서 그림책 만들기, ATP 손씻기 체험, 예코백 디자인, 희망꽃 바람개비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먹어락에서 우리밀 파전, 비건 핫도그 등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락에서 중고나 미사용물품을 판매하는 플라마켓을 ▲뽐내락에서 대한민국 대표 댄

서 '악카마리드'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청소년 밴드, 댄스, 태권도 등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청소년 진로 특강 '우리동네 명인 토크쇼'도 열린다. '악카마리드'가 명인으로 나서 문화예술 분야의 진로 경험을 나누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를 전달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축제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풍암동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제1회 3on3 청소년 농구대회'가 열린다. 대회에는 남중부 10팀, 여중부 6팀 등 16팀이 참가해 경기를 치르며 청소년 동아리 공연, 3점슛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박석우 기자

